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323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7월 28일 (음력 6월 6일) 금요일

“옛 전남도청 복원, 광주·전남 뜻 따를 것”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27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옛 전남도청 복원에 대해 광주·전남의 뜻에 5.18 정신 등 민주주의 정신이 재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유승민의 원 주요 당직자 20여명과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에게 참배했다.

입을 위한 행진곡이 연주되는 속에서 민주주의를 나선 이 대표 등은 분향소 앞에서 헌화·분향했다.

또 묘소로 이동해 전영진 열사와 정학근 열사의 묘소에서는 무릎을 꿇은 채 영령의 넋을 10여분 정도 위로했다.

참배를 마친 뒤 다시 민주주의문으로 내려온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월영령의 앞에 서면서 가슴 아픈 것, 몽클한 것이 세월이 지날수록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커진 것을 느꼈다”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영면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2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전영진 열사 묘소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참배를 하고 있다.

이어 “(바른정당)은 5·18민주화운동에 관해 헌법전문에 넣을 것을 논의할 때, 1987년 이후 지금까지 30여년간 헌법이 고쳐지지 않았고 또 고치기 어려운 민권 부

5월 단체 만나 “원형 복원 등 돕겠다” 약속 “건강한 보수 재건 앞장…애정갖고 봐달라”

마항쟁 등 대한민국의 민주역사에 대해 진반적인 재검토가 같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5·18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 복원에 대해서는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뜻에 따르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빗대면서 건전보수 재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새로운 보수정당 출범에 대해 광주·전남 시·도민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나아가려면 건강한 진보, 건강한 보수가 풀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보수의 날개 (박근혜) 보수 대통령의 실책으로 인해서 많이 훼손 됐다”며 “날개를 건강하게 복원하고 보수를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 사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등은 이후 광주 서구 삼촌동 5·18기념문화센터로 이동해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대표와 회원들을 만났다.

5월 단체는 간담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5·18민주화운동이 너무 왜곡되고 폄하됐다”며 “5·18 최후 항쟁지이자 역사의 현장인 옛 전남도청이 완전히 훼손됐다. 원형 복원을 위해 30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0월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과 관련한 추경 예산이

올라갈 텐데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현재 국회에 5·18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 10여개의 5·18 관련 법률이 계류 중”이라며 “법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옛 전남도청 훼손 문제가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광주 시민들의 아픔이 없는 세상이 오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3당 합당 이후 군부세력과 민주화 운동 세력이 하나가 됐다. 그 세력이 이어진 게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었다”며 “현재 두 개로 나뉘었다. 권위주의, 반민주 세력과 군부세력의 잔재하고 생각하는 분들은 남아 있고, 민주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는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대한민국에 필요하다면 과감히 (문재인 정부에) 협력하겠다”며 “의견이 맞지 않으면 발목만 잡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애정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의원도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은 당장 내년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챙기겠다”며 “바른정당은 5·18이나 한국전쟁, 세월호와 천안함 등 호국과 국가 안보, 민주화운동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한다.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추준성 기자



도전 개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손혜원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군자 할머니의 빈소에서 합치손 기락을 차려주고 밝은 표정으로 촬영한 기념사진이 27일 SNS 등에서 논란이 됐다. 논란은 한 트위터 이용자가 송영길·손혜원 의원이 경기 성남 분당 차병원 정맥실의 김군자 할머니 빈소에서 일행과 촬영한 기념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이들 표정 보고·칠순잔치 오셨나’라는 글을 남기면서 시작했다. 사진 속에는 두 의원이 10여 명과 함께 정맥실 안 음식을 차린 탁자에 둘러앉거나 서서 임지척을 하며 한하게 웃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트위터 글에는 금세 “남의 정맥실에 와서 잔치분 내고 있다”,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 등의 비판성 댓글이 달렸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은 김유정대변인은 “민주당 당원의 책임 있는 조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 본다.

조인호 기자·자료사진=뉴스시스



김유정



송영길



손혜원

광주·전남 무더위 12일째…31일까지 지속

온열질환자 광주 26명·전남 90명

12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은 오는 31일까지 짙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낮 최고기온은 광주·나주 다도 36.2도, 곡성 옥과 34.3도, 담양 봉산·함평 월야·영광 33.9도, 해남 현산·무안 운남·영암 시종 33.8도, 신안 33.7도, 화순 33.5도, 목포 33.3도, 광양 33.2도, 진도 33.1도 등 대부분 지역이 33도를 웃돌았다.

광주는 전남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전남은 흑산도·홍도·거문도·초도, 목포를 제외한 20개 시·군에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기상청은 연중 이틀 이상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35도 이상일 때 폭염경보를 발효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폭염특보가 12일째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오는 28일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약하게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하지만 오는 31일 장미전선의 영향으로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때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영광·함평·해남·강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날 전망이다.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 불쾌지수도 매우 높을 수준인 81~84에 이르렀다. 해안가 지역은 28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 높이가 높아 만조시 침수가 우려된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더위를 식힐 정도는 아니다”며 “물을 자주 마시고 낮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이나 작업을 피하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5월29일부터 이달 25일까지 광주에서는 26명의 온열질환자(열사병·열탈진·열경련 등의 증세를 보인 환자)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9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광주시·전남도에 가족 폐사와 농작물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조인호 기자

본사 휴가로 다음호 8월7일자 발행합니다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입니다

세계적인 인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